

판

정 범 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형 제가 먹을 것을 놓고 다툰다면, 우리는 쉽게 우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큰 놈에게는 양보심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작은 놈에게는 형에게 대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다툼은 때로는 단순히 '우애의 부족'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 덕성과 우애를 키울 수 없었던 분위기, 선행이 결과적으로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믿음의 부족 등의 배경에서 먹거리로 다투는 형제가 탄생한다.

우애의 부족이라는 단순한 답을 외면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답을 찾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뭐가 그리 복잡해?'라고 질문과 동시에 답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애의 증진' 만으로는 봉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급한 문제에 대해 긴급한 대처가 요구될 때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소위 '언발에 오줌싸기'를 할 수도 있다. 발이 얼어 떨어

지는 것을 막았는데도 후일 왜 그렇게 했는지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말만 하면서 비난하는 천박함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는 백지 위에 이론적으로 최적의 답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이다. 사회 구조와 제도의 구축자는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충분하다. 반면에 우리는 역사성을 무시한 채, 한 시점에서 단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왜 이쪽은 크고 저쪽은 작은지 비판할 수 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반대로 저쪽이 크고 이쪽이 작았던 역사를 만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단면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다소간 경쟁을 통해 부패가 억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경쟁을 시키려 해도 기관이 하나뿐인 경우가 있다. 비싼 돈을 들여 신문에 공고를 내보아도 응모자가 1명뿐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고 과거의 문제는 아니었다.

30년 전에는 경쟁은커녕 같은 분야의 사람들 전부 모아도 임계 질량이 되지 않았다. 결국 흠

사회적 수요의 큰 변화가 기존의 틀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짜기를 요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원자력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의 부패, 부도덕함, 이기심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때에 분갈이를 못해주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놓고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모아놓고 소신과 꿈을 불어넣는 편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국립연구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연구소는 대부분 학문 분류가 기관의 명칭이다. 이런 체제는 30년 전의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기관이 하나뿐인 현재의 체제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급격히 성장했다. 원자력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의 판짜기는 판짜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한 결과일 것이다.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전 건설과 운영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이런 판짜기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30여년 전에 수립한 '틀'과 '제도'를 정비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고 원자력의 시대 구분이 달라졌다. 원자력 건설은 조만간 둔화될 예정이고, 연구 개발은 기술 획득형 연구에서 원천 기술 확보형 연구로 옮겨갈 것이다. 원자력 시장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에너지원의 확보 차원의 원자력에서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원자력으로의 전환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큰 변화가 기존의 틀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짜기를 요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과 보면서도 그때쯤엔 은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원전 건설이 둔화되면 원자력 시장은 재편될 것이다. 원천 기술의 획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과는 다른 연구 개발 시스템과 차원이 다른 연구비를 요할 것이다. 수출 시장을 제대로 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원자력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의 부패, 부도덕함, 이기심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때에 분갈이를 못해주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